

[列國誌] 2부 장강의 영웅들 (289)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1)

초(楚)나라를 쳐부순 이후 오왕 합려(闔閭)의 명성과 위엄은 중원에까지 크게 떨쳤다. 합려(闔閭)는 천하가 손안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북방의 제(齊)나라와 남쪽의 월(越)나라다.

그 두 나라만 제압하면 오(吳)나라는 명실공히 중원의 3분의 2를 지배하는 패자(霸者)가 되는 것이다.

합려(闔閭)가 제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다름 아니다.

제(齊)나라가 회수(淮水)를 사이에 두고 오(吳)나라 바로 정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나라만 굴복시키면 황하 근방의 노(魯)나라나 위(衛)나라, 정(鄭)나라 등은 자연 오나라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생각만 해도 짜릿한 일이었다.

어느 날, 합려(闔閭)는 신임 재상 오자서를 불러 물었다.

"북의 제(齊)나라를 먼저 도모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남쪽의 월(越)나라를 먼저 평정하는 것이 좋겠소?"

오자서(伍子胥)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끝에 대답했다.

"북입니다."

"어째서 그렇소?"

"남쪽의 월(越)나라는 해안선이 복잡하게 뒤얽힌데다가 산이 가로막혀 있어 일시에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이 곳을 치면 저 곳으로 도망치고, 저 곳을 치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쳐 좀처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랜 세월을 두고 야금야금 정복해 들어가야 합니다. 반면....."

북쪽의 제(齊)나라는 임치성을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가 잡혀 있다. 백성들도 공실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비록 영토는 넓다고 하나 힘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그 중심부만 제압하면 나머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오자서의 말을 들은 오왕 합려(闔閭)는 공감이가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어떻게 제나라를 제압하는 것이 좋겠소?"

이번에는 오자서의 대답에 망설임이 없었다.

"제(齊)나라는 최근 동방의 패자로 자처할 만큼 힘이 강대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재상 안영과 사마 전양저로 인해 나라도 안정되었습니다. 힘으로 맞서서는 결코 그들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나라와 우호를 맺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호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吳)나라는 한 면이 바다요, 삼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군사가 아무리 용맹하다 하더라도 세 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초(楚)나라는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므로 당분간 안심해도 됩니다."

남은 것은 제나라와 월나라인데, 우리가 제나라와 우호를 맺으면 모든 힘을 남쪽으로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이 북쪽을 도모하자는 것은 제(齊)나라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제나라를 동맹

국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오왕 합려(闔閭)는 비로소 오자서의 뜻을 알아챘다.

결국 오자서(伍子胥)는 월나라를 평정하여 남쪽 후방을 안정시킨 후 제나라를 길목으로 하여 중원을 제패하자는 것이었다.

"좋은 계책이오. 그런데 우리는 제(齊)나라와 아무런 교류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우호를 맺는단 말이오?"

"세자 파(波)가 부인을 잃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왕께서는 세자 파를 언제까지 혼자 놔둘 작정이십니까?"

"제나라와 혼인을 맺자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齊)나라와는 교류가 없지만 사자를 보내어 청혼하면 결코 그들은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호를 맺는 첩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합려(闔閭)는 추진력이 강한 왕이었다. 오자서의 간언을 듣자 즉시 대부 왕손락(王孫駱)을 제나라로 보내어 혼인을 청했다.

이 무렵 제경공(齊景公)은 나이가 이미 일흔이 넘었다.

늙고 쇠약해서 과거의 진취적이고 호방한 기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느닷없이 남방 오랑캐인 오(吳)나라가 청혼해오자 당황했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화를 내며 청혼사를 꾸짖어 쫓아냈겠으나, 지금은 그런 패기가 사라졌다. 더욱이 지금 오(吳)나라는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신하들을 불러 물었다.

"오나라와 혼인하는 것이 어떠한가?"

대부분의 신하들이 침묵하는 중에 총신인 대부 여미(黎彌)가 아뢰었다.

"오(吳)나라는 초나라 수도를 점령할 만큼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들과 우호를 맺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 청혼을 거절하면 그들은 필시 대군을 몰고 임치를 향해 쳐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제경공(齊景公)은 머릿속으로 불타는 임치성의 광경을 그려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마침 그에게는 열다섯 살이 갓 넘은 어린 딸이 있었다. 늦게 얻은 딸이라 무척 사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소강(少姜)이라 불렀다.

제경공(齊景公)은 소강을 오나라로 시집보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나라에서 온 청혼사를 불러 승낙하는 말을 내렸다.

여러 차례 사신이 오간 끝에 마침내 소강(少姜)은 오나라 세자 파(波)에게 시집왔다. 그런데 소강은 나이가 너무 어렸다. 몸도 성숙하지 못했다. 밤이 되면 괴로웠다.

소강(少姜)은 풍속과 기후가 다른 낯선 남방 땅의 생활이 이만저만 고역이 아니었다. 틈만 나면 고국을 생각하며 울었다. 세자 파(波)가 위로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소강은 우울증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었다.

오왕 합려(闔閭)는 어린 새 며느리가 불쌍했다.

그녀가 늘 북쪽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북문 성루를 개조하여 호화스럽게 장식했다. 성문이름도 '망제문(望齊門)'이라고 고쳤다.

소강(少姜)은 매일 망제문 위로 올라가 북쪽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하늘만 쳐다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녀의 슬픔과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쌓여갔다. 병세도 더욱 악화되었다.

끝내 소강(少姜)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소강은 남편인 세자 파(波)에게 부탁했다.

"제가 죽거든 우산(虞山) 꼭대기에 묻어주십시오."

우산은 오성 근처에 있는 산으로, 소강은 죽어서라도 제(齊)나라 쪽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이다.

소강(少姜)이 죽자 세자 파(波)는 합려의 허락을 받아 그녀를 우산(虞山) 위에 묻었다. 오늘날도 안휘성 상숙현 우산에 올라가면 제녀묘(齊女墓)가 있다. 소강의 무덤이다. 또 그 곁에 망해정(望海亭)이라는 정자가 서 있다.

그런데 세자 파(波)는 마음이 무척 여렸다.

소강을 무척 사랑했었던 것이다. 어린 아내가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또한 병들어 눕고 말았다.

얼마 안되어 세자 파(波)도 소강(少姜)의 뒤를 따라가듯 세상을 떠났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2)

졸지에 어린 며느리에 이어 세자 파(波)마저 잃은 오왕 합려(闔閭)는 침통했다.

하지만 그는 슬픔에 젖어 나라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제 북쪽이 안정되었으니 월(越)나라를 치리라!"

합려(闔閭)는 이렇게 선언했다.

그런데 재상 오자서(伍子胥)가 반대하고 나섰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어째서 때가 아니라고 하오?"

"안이 튼튼해야 밖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막 세자를 잃었습니다. 세자는 나라의 앞날입니다. 먼저 후계를 정해놓은 뒤 월(越)나라를 쳐야 합니다."

합려(闔閭)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과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소. 누가 좋을 것인가?"

그보다 며칠 전이었다.

오자서(伍子胥)는 느닷없이 한밤중에 한 사내의 방문을 받았다. 합려의 아들이자 세자 파(波)의 친동생인 부차(夫差)였다.

- 공자께서 웬일이십니까?

부차(夫差)는 용모가 비범하고 기상이 출중하여 죽은 형과는 대조적이었다. 속으로 적지 않은 야심도 키우고 있었다.

이때 부차의 나이 26세.

한창 패기만만한 시절이었다.

- 나라의 앞일을 의논하고자 특별히 재상을 찾아왔습니다.

오자서(伍子胥)는 속으로 짐작했으나 모르는 척 물었다.

- 나라의 앞일이라니요?

- 세자이신 형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부왕께서는 조만간 새로 세자를 세우실 터인데, 형

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나라 적자(嫡子)는 바로 나입니다. 적자가 세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상께서는 부왕께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공자 부차(夫差)는 돌아갔다.

'왕재(王才)다!'

오자서(伍子胥)는 부차가 제법 당차다고 생각했다. 기회를 엿보던 중 합려가 월나라 치는 일을 꺼냈을 때 그는 오히려 후계자 얘기를 꺼낸 것이었다.

여러 아들 중 누가 적임자이겠냐는 합려의 물음에 오자서(伍子胥)는 망설임없이 대답했다.

"후계를 정하는 일은 적자라야 뒤에 어지러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파(波) 세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바로 아랫동생인 부차(夫差) 공자가 적자입니다. 마땅히 부차(夫差) 공자를 후사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합려(闔閭)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내가 보기에 부차(夫差)는 어리석고 인자하지 못하오. 오나라 계통을 계승하지 못할까 두렵구려."

"부차는 신의가 있어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며, 또한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우리 오(吳)나라는 바야흐로 중원으로 웅비할 날개를 펴는 중입니다. 이런 때에는 활달하고 기상이 출중한 분이 나라를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오자서의 적극적인 추천에 합려(闔閭)는 마음을 정했다.

"그대의 말을 좇기로 하겠소. 그대는 부차(夫差)를 잘 보좌해주기 바라오."

이렇게 하여 부차는 오나라 세자에 책봉되었다.

그 날로 그는 오자서의 집으로 가서 감사의 절을 올렸다.

BC 497년 (오왕 합려 18년)의 일이었다.

그해 겨울, 뜻밖의 소식이 오(吳)나라에 전해졌다.

- 월왕 윤상(允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상은 오랫동안 월나라를 다스려온 명군이였다.

어린 나이에 임금에 올라 복잡하게 얽힌 해안선을 따라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실공히 월(越)나라를 강대국으로 끌어올렸다.

남쪽 땅에서 양질의 쇠가 많이 나는 점을 이용해 주재료가 구리였던 병기를 철기로 바꾼 주인공이기도 했다.

월나라에 명검(名劍), 명장(明匠)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월왕 윤상의 적극적인 광산 개발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윤상이 죽고 아들 구천(勾踐)이 월나라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합려(闔閭)는 눈을 매처럼 번뜩였다.

"하늘이 내린 기회요. 윤상이 죽고 그 아들 구천(勾踐)이 새 왕에 올랐다고 하니, 지금쯤 월(越)나라는 매우 어수선할 것이오. 이 틈을 타 월나라를 정벌하는 것이 어떻겠소?"

모든 신하들이 찬성하는데, 유독 오자서만은 고개를 저었다.

"비록 월(越)나라가 우리 나라에 지은 죄는 적지 않지만, 국상이 난 것을 기회로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입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여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후일 월(越)나라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려가 주저하는 빛을 보이자 태재 백비(伯嚭)가 일어나 흔연히 말했다.

"월(越)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웃해 있으면서도 초나라와 가까이하며 번번히 우리의 배후를 노려왔

습니다. 이제 윤상이 죽고 철없는 구천(勾踐)이 왕위에 올랐다 하니 월나라도 윤이 다했음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에 관한 일을 앞에 놓고 어찌 참된 용기 운운하며 한가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월(越)나라를 송두리째 없애버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군사를 일으키십시오."

백비(伯嚭)가 눈에 불을 켜고 오자서의 말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원래 백비는 초(楚)나라 망명객으로서 오자서의 천거에 의해 오나라 국정에 참여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초나라를 원수로 삼고 있었다. 초나라를 치는 일에는 의기가 투합됐다. 그런데 초나라 수도 영성 점령 이후 백비(伯嚭)의 마음속에는 다른 야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어찌 오자서 혼자 오나라 국정을 좌지우지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리라 마음먹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월(越)나라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합려의 비위를 맞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기면 일등공신이요, 지면 그뿐인 것이다.

오자서와 백비의 의견이 대립되자 합려(闔閭)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역시 마음은 월(越)나라 정벌 쪽으로 쏠려 있었다. 잠시 생각한 끝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세자 부차(夫差)는 오자서와 함께 도성을 지키라. 나는 백비, 왕손락, 전의 등과 함께 정병 3만을 거느리고 남문으로 나가 월(越)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리라!"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3)

앞서도 언급했듯, 월(越)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홀연히 중국 역사 무대 위로 등장했다. 그 이전까지의 일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사기>에 의하면 월나라 조상은 하왕조를 세운 우(禹) 임금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다. 아마도 하왕조 때 회계 땅에 봉해진 모양이다.

회계(會稽)는 지금의 절강성으로, 중국 대륙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그 부족은 몸에 문신(文身)을 하였고, 머리를 짧게 잘랐다. 이는 대체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풍습이다. 꽤나 원시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로가 확보되고 문화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그들도 문명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철 제련법의 발달이 그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바야흐로 철기시대를 연 것이며, 월(越)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역사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된 주인이 아닐까.

월(越)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물론 칼과 관계되는 일화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검객과 관련이 깊다. 월(越)나라에는 소위 명검이라고 하는 훌륭한 칼만 많이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에 못지 않은 검객도 출현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검객 월녀(越女)'다.

오나라, 월나라 역사 얘기를 담은 <오월춘추(吳越春秋)> 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월(越)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월녀(越女)는 인적과 멀리 떨어진 숲 속에 살며 검술을 익혔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신묘한 검

술을 칭찬하였다.

이 소문은 널리 퍼져 월왕 윤상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윤상(允常)은 사자를 파견해 후한 예물을 주며 군사들에게 검술을 가르쳐달라고 그녀를 초청했다.

월녀(越女)는 월왕의 초빙에 응하여 도성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원공(猿公)이라고 하는 노인을 만났다. 원공이 월녀에게 말했다.

- 듣자하니 네가 검술에 뛰어나다고 하는데, 나와 한번 겨루어보자.

월녀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 제가 어찌 노선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만,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숲 속에 있는 대나무를 다듬어 칼의 대용품으로 삼아 대결하였다. 원공(猿公)이 먼저 월녀에게 공격을 가했다. 월녀(越女)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몸을 움직이며 원공의 공격에 반응했다.

가늘고 짧은 대나무 끝을 뺀어 정확하게 원공의 대나무 칼 끝에 맞춘 것이다. 원공(猿公)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 뒤로 물러나 다시 공격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세 번씩 공수를 주고받았다.

마침내 월녀(越女)가 원공을 향해 공격했다. 원공은 그 공격을 당해낼 수 없어 뒤로 물러나 훌쩍 높은 나무위로 뛰어올랐다. 별안간 원공(猿公)은 간 데 없이 사라지고 흰 원숭이만이 나뭇가지 위에 서서 길게 울부짖더니 홀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 뒤 월녀(越女)는 궁으로 들어가 월왕을 만났다.

월왕은 장교 이상의 지휘관을 불러 월녀에게서 신묘한 검술을 배우게 하였고, 다시 장교들은 군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때부터 월나라 군대의 검술은 열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게 되었다.....

월(越)나라가 역사 무대 위로 나서자마자 강국으로 활약하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일화다.

윤상에 이어 새로이 월왕에 오른 구천(句踐) 또한 검과 검술을 매우 즐겼음에 틀림없다.

1965년 호북성 강릉의 초묘(楚墓)에서 발견된 월왕구천지검(越王句踐之劍)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 월왕 구천(句踐)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위기를 맞았다.

이듬해 봄, 북쪽 이웃 나라인 오나라 왕 합려가 3만 대군을 이끌고 월나라 땅으로 쳐들어 온 것이다.

구천(句踐)은 젊고 용맹이 출중한 사람이었다.

더욱이 그에게는 아버지 윤상 시대부터 벼슬을 살아온 유능하고 노련한 신하들이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범려(范蠡), 문종(文種), 제계영(諸稽郢), 영고부(靈姑浮), 주무여(疇無餘), 서안(胥犴) 등이었다.

이 중 특히 범려(范蠡)는 윤상 말년에 발탁한 대부로서, 나이는 젊었지만 국정 운영에 천부적이라 할 만큼 많은 재능을 지닌 인재였다.

월왕 구천(句踐)은 오군이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접하자마자 중신 회의를 열었다. 대부 범려(范蠡)가 말했다.

"오나라가 우리의 국상(國喪)을 이용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은 정도(正道)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싸움에 이길 것입니다. 더욱이 오나라는 손무가 은퇴하였으므로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오자서뿐인데, 그 오자서마저 오성(吳城)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왕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취리(樵李) 땅으로 나가 오군을 맞아 싸우십시오."

범려의 말에 월왕 구천(句踐)은 힘이 솟았다. 곧 방어군을 편성했다.

- 제계영(諸稽郢)은 대장이 되고, 영고부(靈姑浮)는 선봉장이 되라.

- 주무여(疇無餘)와 서안(胥犴)은 좌우익이 되어 과인을 보좌하라.

아울러 대부 범려를 군사(軍師)로 삼아 군사 3만을 이끌고 오군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4)

오·월 두 나라 군대는 취리(樵李) 땅 용문산(龍門山) 근처에서 마주쳤다.

서로 10리 간격을 두고 영채를 세웠다.

이튿날부터 두 나라 군사들은 한데 어우러져 싸웠다.

좀처럼 승패가 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전심전력을 기울인 것이었다. 3일 연속 싸웠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자 오왕 합려는 전략을 세로이 세웠다.

"영채를 오대산(五臺山)으로 옮겨라."

오대산은 취리(樵李) 북쪽에 위치한 산이다.

일종의 후퇴였다. 그는 월군(越軍)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고 일부러 후퇴하는 척하여 월군이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일거에 덮쳐들 작정이었던 것이다.

다음날 월왕 구천(句踐)은 싸움을 걸기 위해 영채를 나섰다가 오군이 오대산 기슭으로 옮긴 것을 알았다. 높은 구릉 위로 올라가 바라보니, 오군의 대오는 정연했고, 창과 갑옷이 햇빛에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다.

구천(句踐)은 은근히 겁을 먹었다.

대장 제계영을 불러 말했다.

"오군이 저렇듯 형세가 대단하니 쉽게 무찌르지 못할 것 같소. 그렇다고 저들을 마냥 우리 땅에 둔치게 할 수도 없는 일. 어찌 무찌르면 좋겠소?"

제계영(諸稽郢)이 대답한다.

"정면으로는 깨기 어려우니 별동대를 조직하여 저들을 어지럽힌 후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천(句踐)은 제계영의 말에 따라 별동대를 조직했다.

주무여(疇無餘)가 지휘하는 좌익 군사 중에 5백 명을 뽑고, 서안(胥犴)이 지휘하는 우익 군사 중에서 5백 명을 뽑았다. 그들은 각기 장창과 극(戟, 가지 창)을 꼬나쥐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오나라 영채 양편을 공격했다.

그러나 오군 진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영채 주위로 높은 루(壘)를 쌓아놓고 그 뒤편에 궁노수를 배치해두었다. 별동대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은 방벽 뒤에서 활만 쏘아댈 뿐 군사를 내지 않았다.

월(越)나라 별동대는 세 번이나 올라갔지만 오히려 희생자만 냈을 뿐 별다른 전공을 세우지 못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낙심했다. 어두운 얼굴로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군사 범려(范蠡)가 말했다.

"정공법으로는 오군을 격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계(奇計)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라면 무엇을 말함이요?"

"죄수들을 이용하여 적의 예기를 꺾은 후 일거에 들이치면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귓속말로 한참을 속삭였다.

구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과연 기계(奇計)구려."

다음날 구천(句踐)은 사자를 도성으로 보내 명했다.

- 사형수 3백 명을 뽑아 데려오라.

며칠 후 사형수 3백 명이 월군 영채에 당도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그들을 모아 놓고 명했다.

"너희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겠노라."

그는 사형수들에게 할 일을 지시했다.

잠시 후, 3백 명의 사형수는 1백 명씩 3대(三隊)로 나누어 오군 진영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복장은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섬뜩했다. 상체는 벗겨진 채였고, 손에는 각자 커다란 칼을 거머쥐었다. 벗겨진 몸뚱아리에는 온갖 기괴한 문신이 새겨져 있어 더욱 음산했다.

오나라 군사들은 영채 안에 있다가 이 기괴한 행렬을 발견했다. 결사대인가, 생각하여 바짝 긴장했다. 그러나 결사대치고는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조용하고 느릿느릿했다. 오군(吳軍) 병사들은 활을 쏘는 대신 계속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3백 명 사형수 중 선두에 선 1백 명이 오나라 진영 앞에 멈춰섰다. 한 죄수가 나와 오(吳)나라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우리들은 큰 죄를 지은 사형수들이요. 이제 그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스스로 사형식을 거행할까 하오."

말이 끝나자마자 일렬로 늘어선 1백 명의 죄수들은 일제히 칼을 들어 자기 목을 찔렀다. 선혈을 뿜으며 그들은 차례차례 쓰러져 죽었다. 고금을 통해 들어본 적이 없는 진풍경이었다.

영채 너머로 이 진귀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오(吳)나라 군사들은 기겁초풍했다.

"저게 무슨 일인가?"

"여기 와서 죽는 속셈이 뭐야?"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이 두 번째로 1백 명의 죄수들이 영문 앞에 서서 또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찌르고 죽었다. 그들이 죽자 그 뒤에 있던 일대(一隊)가 역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자결했다.

이제 오(吳)나라 군사들은 놀라움을 넘어서 기가 질러버리고 말았다.

그때였다.

별안간 좌우 골짜기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일며 한 떼의 군사들이 벌 떼처럼 달려나왔다. 오군 장수 주무여(嚳無餘)와 서안(胥狎)이 지휘하는 좌우익 군사들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오군(吳軍) 병사들은 느닷없는 월나라의 공격에 혼비백산했다. 얼떨결에 활을 쏘아대기는 했으나, 이미 영채 좌우의 누벽(壘壁)이 무너진 뒤였다.

뿐만 아니었다. 영채 바로 정면으로 월왕 구천(句踐)이 대군을 거느리고 벼락처럼 달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제야 월군의 계책에 속은 것을 깨달은 오왕 합려(闔閭)는 북을 치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들은 철저히 월군에 의해 포위된 것이었다.

"포위망을 뚫어라!"

악 쓰듯 외쳐대는 사이 홀연 한 장수가 그 앞에 나타났다.

월나라 대장 제계영(諸稽郢)이었다.

제계영(諸稽郢)은 합려를 보자 화살처럼 일직선으로 달려왔다. 그가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오군

장수 왕손락(王孫駱)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제계영은 합려를 버리고 왕손락을 맞아 칼을 휘둘러 댔다.

그 틈을 이용해 합려(闔閭)는 영채를 벗어났다.

그가 막 북쪽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또 한 장수가 번개처럼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월군 선봉대장 영고부였다.

영고부(靈姑浮)는 다짜고짜 합려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합려는 기겁하여 상체를 뒤로 젖혔다. 칼날은 그의 얼굴 앞을 지나쳐 그대로 발등을 찍었다.

"아악!"

합려(闔閭)는 자신의 오른발이 끊어져 나간 것을 알았다.

고통을 참고 겨우 병차에 매달려 달리는데 다행히 오군 장수 전의(專毅)가 달려와 그를 호위했다. 왕손락(王孫駱)은 제계영을 맞아 싸우다가 오왕 합려가 부상당한 것을 알고는 재빨리 빠져나와 전의와 함께 합려를 모시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싸움은 일방적이 되었다.

월나라 군사는 신바람이 나서 달아나는 오군을 찌르고 베고 넘어뜨렸다.

월군(越軍)의 대승이었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5)

발이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은 오왕 합려(闔閭)는 10리 밖으로 달아나 형(陘)이라는 곳에서 패잔병을 수습했다. 더 이상 싸울 의욕을 잃었다.

"아아, 오자서의 말이 틀림없구나."

회군령을 내렸다

오군(吳軍)은 침울했다.

왕 합려의 부상이 몹시 심했기 때문이었다. 겨우 지혈을 하여 피를 멈추게 한 후 쉬지 않고 오성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합려(闔閭)는 더 이상 자신이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오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수레를 멈추게 한 후 백비에게 말했다.

"세자 부차(夫差)를 불러오라."

오성에 남아 있던 부차와 오자서는 합려가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왔다.

합려(闔閭)가 눈물을 뿌리며 오자서를 향해 말했다.

"내가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려. 아아, 구천에 대한 원수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나는 오자서(伍子胥) 그대만 믿겠소."

오자서는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왕께서는 이번 패전에 대해 꽤넘치 마십시오. 쾌유하신 연후에 얼마든지 구천(句踐)에 대해 보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왕 합려(闔閭)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틀린 것 같소. 내가 죽거든 그대는 부차(夫差)를 도와 나의 원수를 꼭 갚아주세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아들 부차의 손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부차야, 부차야. 너는 월(越)나라를 잊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남겨주는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부차(夫差)가 눈물을 뿌리며 대답하려는데, 합려의 입에서 검은 피가 한 움큼 쏟아져 나왔다. 놀란 오자서와 부차가 합려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합려의 숨은 이미 끊어진 뒤였다.

BC 496년(오왕 합려 19년) 여름의 일이었다.

부차(夫差)는 부왕 합려의 유해를 수레에 모시고 오성으로 돌아왔다.

오자서를 비롯한 백비, 왕손락 등은 예법에 따라 세자 부차(夫差)를 왕위에 올려 모시고 합려에 대한 장사를 치렀다. 장지는 파초문 밖 해용산(海瀕山).

오늘날 소주 교외의 호구(虎丘)가 그 곳이다.

오왕 합려의 묘가 '호구(虎丘)'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내력이 있다.

부차(夫差)는 합려의 묘를 조영하는 데 10만 명의 인부를 동원했다. 삼중으로 곽(郭)을 만들고 봉분 안에는 어장을 비롯한 3천 개의 칼을 묻었다. 또 수은으로 연못을 만들어 금은옥으로 세공한 물새를 그 곳에 띄웠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바라보니 합려의 능 위로 커다란 백호(白虎)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해용산을 호구산(虎丘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일설에는 백호(白虎)가 나타난 것은 이 시대가 아니라 합려가 죽은 지 270년이 지난 진시황(秦始皇) 때라고 한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제는 합려가 소장하고 있던 명검을 갖고 싶어서 해장산에 매장된 합려의 묘를 파다.

도굴 중에 백호가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했다. 그 바람에 도굴은 중지되고, 사람들은 해용산을 호구산(虎丘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진시황(秦始皇)은 끝내 합려의 칼을 찾아내지 못했다.

또 묘를 파낼 때 생긴 커다란 구멍에 물이 괴어 못이 되었는데, 그 못이 곧 '검지(劍池)'다. 지금도 소주 호구산에 가면 검지가 있다.

이제 부차(夫差)는 오나라 왕이 되었다.

그는 부왕 합려의 유언을 잊지 않았다. 그는 상당히 집요한 성격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월(越)나라로 쳐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 국상(國喪) 중에는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라는 오자서의 말에 따라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복수심이 약해질까 두려워 시자(侍者) 열 사람을 궁전 좌우에 배치한 후 다음과 같이 외치게 했다.

- 부차야, 너는 월왕(越王)이 네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겠지?

시자들은 부차가 궁전 안팎을 출입할 때마다 매번 이 같은 말을 큰소리로 외쳐댔다. 또 조정 신하들에게도 이 같은 말을 일러주며 인사로 대신하게 했다.

그때마다 부차(夫差)는 피눈물을 쏟으며 대답했다.

"내 어찌 월(越)나라를 잊을 리 있으리오."

그러는 한편 오자서와 백비에게 명하여 맹렬하게 군사들을 훈련시켰다.

태호(太湖)에는 늘 수군들이 나와 훈련에 임했고, 영암산 골짜기는 보병들이 진을 치고, 활을 쏘고, 나가고 물러나고 하는 함성소리로 오(吳)나라는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렇게 2년여가 흘렀다.

부차(夫差)는 상복을 벗었다. 수군과 육군의 훈련도 모두 마쳤다. 오나라 군사력은 2년 전에 비해 놀랍도록 강해져 있었다.

"이제야말로 월(越)나라에 대해 복수할 때다!"

마침내 부차(夫差)는 태묘에 제사를 올린 후 전군에 명을 내렸다.

- 월나라로 쳐들어가라!

오자서(伍子胥)가 총대장이 되었고 백비가 부장이 되었다.

오군(吳軍)은 태호 물길을 따라 수륙 양면으로 월(越)나라를 향해 일제히 공격해 들어갔다.

BC 494년(오왕 부차 2년) 봄의 일이었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6)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오왕 부차(夫差)의 대대적인 침공을 맞은 월왕 구천(句踐)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중얼거렸다.

- 가소롭구나 부차여. 이번에는야말로 너를 죽이고 오(吳)나라를 멸망시키리라!

구천(句踐)은 모든 신료를 불러 오군을 맞이해 싸울 일을 의논했다.

그런데 중신들의 뜻이 구천과 같지 않았다.

대부 범려(范蠡)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나라 사람들은 지금 전왕 합려의 죽음을 철천지한(徹天之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월(越)나라를 치기 위해 지난 2년여 간 뼈를 깎는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들의 사기는 산을 울릴 정도입니다. 이런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은 이롭지 못합니다. 군사를 내는 것보다는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부 문종(文種)도 군대 내는 것을 반대했다.

"범려(范蠡)의 말이 옳습니다. 오자서의 군대는 이제껏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대저 책략이란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 후 이행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의욕을 앞세워 싸우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도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왕께서는 굳게 지키시면서 몸을 낮추어 화친을 구한 후 패자(覇者)의 야망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평소 구천(句踐)은 이들의 말에 한 번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너무 달랐다. 구천은 노골적으로 불만스런 표정을 지었다.

"맞서 싸우는 것을 피하고 지키기만 하라니, 나는 그대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소. 초(楚)나라를 정벌한 바 있는 합려도 나에게 패해 목숨을 잃었는데, 하물며 그 아들 부차 따위를 겁내다니!"

"겁내는 것이 아니라 적의 날카로운 예기가 무디어지기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굳게 지키자는 범려(范蠡)의 생각이나 화친을 도모하자는 문종(文種)의 생각은 다 좋은 계책이 아니요. 오(吳)나라는 대대로 우리와 원수지간이요.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내 어찌 앞으로 이 나라를 통솔하겠소?"

이미 한 번 오군을 대파한 바 있는 구천(句踐)은 두려울 것이 없었다.

결국 범려와 문종의 의견을 기각하고 전군을 동원하여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임을 선포했다.

구천(句踐)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물길을 거슬러 태호(太湖) 방면으로 진격했다.

두 나라 군사는 부초산(夫椒山) 아래서 맞부딪쳤다.

군사를 먼저 일으킨 것은 오왕 부차(夫差)였지만, 막상 싸움이 붙자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것은 월왕 구천(句踐) 쪽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첫 싸움에서 부차는 구천에게 패했다. 오군(吳軍)은 1백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신바람이 났다.

승세를 타고 오군을 추격했다.

3사(三舍, 90리) 거리를 물러난 오자서(伍子胥)가 전군에 새로운 명을 내렸다.

- 영채를 굳게 쌓되, 나가 싸우지 마라. 명을 어기는 자는 목을 베리라!

월(越)나라 군사는 사기충천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싸움을 걸어왔다.

그러나 오군 진영은 일절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쥐 죽은 듯 조용히 영채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뿐이었다.

부아가 치민 것은 오왕 부차(夫差)였다.

그는 오자서를 불러 다그치듯 물었다.

"어째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요?"

오자서(伍子胥)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의 몸에 병이 있어 지금은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바탕 꾸짖음을 내리려던 부차(夫差)는 오자서가 아프다는 말에 노기를 가라앉혔다. 오히려 걱정하는 빛을 띠었다.

"적은 매일같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오자서(伍子胥)가 병에 걸려 싸울 수가 없다니,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오왕 부차(夫差)는 낙심했다.

이 정보는 세작(細作)들에 의해 월왕 구천의 귀에도 들어갔다.

구천(句踐)은 오자서가 와병중이라 나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양천대소(仰天大笑)했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오군의 사기는 지금쯤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럴 때 총공세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또 기회를 맞이하랴!"

매사에 신중함을 기하는 범려(范蠡)가 구천에게 간했다.

"오자서(伍子胥)는 지략이 깊은 장수입니다. 그는 우리를 꾀려고 일부러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쳐들어가지 마십시오."

"의심도 병이오. 이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소."

구천(句踐)은 범려의 간언을 일축하고 전군에 총공격령을 내렸다.

월나라 군사들은 북을 울리며 전함을 타고 상류를 향해 쳐들어 올라갔다. 그들이 부초산(夫椒山) 기슭 아래를 지나갈 때였다.

별안간 양쪽 갈대숲에서 수백 척의 배가 일제히 미끄러져 나왔다.

두말할 나위없이 오군(吳軍) 전함이였다.

그 배들은 빠른 속도로 진격하더니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적함이다!"

월(越)나라 군사들은 방향을 틀어 미끄러져 달려오는 오군 전함을 향해 화살로 맞대응했다.

그때 또 강의 상류쪽에서 커다란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수십 대의 오군 전함이 무서운 속

도로 구천(句踐)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덮쳐들었다. 선수(船首)에는 오자서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었다.

"오자서다!"

월(越)나라 군사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병들어 누워 있는 줄 알았던 오자서(伍子胥)가 난데없이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범려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은 구천(句踐)은 친히 복채를 들고 군사들을 독려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일제히 적함을 공격하라."

하지만 이미 예기가 꺾인 월나라 군사들이었다.

그들은 양쪽에서 퍼부어대는 불화살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자서(伍子胥) 전대(戰隊)의 위세에 잔뜩 겁을 먹었다. 허둥지둥하며 공연히 아까운 화살만 강물 속으로 쏘아댈 뿐이었다.

그때 북풍이 사납게 불어와 파도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오자서(伍子胥)가 이끄는 함대는 더욱 빠른 속도로 다가온 반면, 월나라 전함들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기우뚱거렸다. 그 바람에 갑판 위에 서 있던 군사들 수십 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강물 속으로 빠졌다.

바람이 잦아졌을 때는 월군(越軍)은 이미 삼면이 오군에 포위된 뒤였다.

오자서가 함교에 우뚝 서서 크게 소리쳤다.

"월왕(越王)은 들어라. 나 오자서가 선왕의 원한을 갚기 위해 여기 왔노라!"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배들이 일제히 월왕 구천(句踐)이 타고 있는 전함만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월왕 구천(句踐)은 기겁했다. 이제는 방향을 틀어 강 하류쪽으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다.

"퇴각하라!"

배들이 일제히 머리를 돌려 하류로 향했다. 이에 오군(吳軍)은 신바람이 나서 월군(越軍)뒤를 추격하며 쉴 새 없이 화살을 퍼부어댔다.

월군(越軍)은 다급했다.

자기네 배끼리 서로 부딪쳤다.

월군 장수 영고부가 탄 배가 가장 먼저 뒤집혔다. 영고부(靈姑浮)는 물 속에 빠진 채 헤어나지 못했다. 선봉장 서안(胥犴)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오군(吳軍)은 승세를 놓치지 않고 월(越)나라 군사를 마구 쏘아죽였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7)

겨우 포위망을 뚫고 목숨을 구한 월왕 구천(句踐)은 고성 땅에 이르러 육지로 올라왔다. 하지만 오군(吳軍)의 추격은 더욱 거셌다. 그들은 고성(固城) 땅을 겹겹이 포위하고 성안으로 이어지는 물줄기를 모조리 끊어버렸다.

뒤늦게 오자서의 병이 적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책이었음을 안 오왕 부차(夫差)는 몹시 기뻐했다. 오자서가 고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 자신도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고성으로 달려왔다.

"과연 경(卿)은 천하 영걸이오."

오자서(伍子胥)가 허리를 숙이며 사죄했다.

"본의 아니게 왕을 속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나부터 속여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았소. 그나저나 언제쯤이면 월왕을 무릎꿇게 할 수 있겠소?"

"열흘 안에 월왕(越王)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열흘이오?"

"고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줄기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열흘이 지나면 저들은 목이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자서(伍子胥)는 알지 못했다.

고성 안에는 낮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영천(靈泉)이란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는 것을.

열흘이 지나도 고성(固城)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오자서가 이상하게 여길 때 성 안에서 사자가 나왔다. 오자서(伍子胥)는 이제야 항복 사자가 왔나보다 싶어 얼른 그를 맞아들였다.

그런데 사자가 내민 것은 항복 문서가 아니라 방금 잡은 듯한 싱싱한 물고기였다.

비로서 고성 안에 샘물이 있음을 안 오자서(伍子胥)는 다시 고성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구천(句踐)은 이미 사흘 전에 고성을 빠져나간 뒤였다.

그 무렵.

월왕 구천(句踐)은 회계산에 도착하여 패잔병을 점검하고 있었다.

회계산은 지금의 절강성 소흥현 동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당시 월나라 도성인 제기(諸暨)와 매우 가까웠다.

남은 병사는 5천여 명.

그나마 부상자가 반 이상이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오군에게 반격을 가할 수가 없었다. 월군(越軍)은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월왕 구천(句踐)은 침통한 표정으로 탄식했다.

"내가 범려와 문종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또 급보가 날아들었다.

- 고성을 함락시킨 오자서(伍子胥)가 회계산으로 진격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구천의 얼굴이 새하얗졌다.

자신도 모르게 군사 범려를 돌아다보았다.

살아날 계책을 마련해보라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범려(范蠡)가 못 본척 입을 다물고 있자 구천(句踐)이 다시 말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위기를 타개해나가는 사람에게는 경(卿)으로 삼아 월나라의 국정을 함께 논의하리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범려(范蠡)가 보다 못 해 한마디 던졌다.

"장사를 잘하는 상인은 여름에는 가죽을 사들이고 겨울에는 홑옷을 사며, 가뭄이 들 때는 배를 사고 장마가 질 때는 수레를 사두어 물건이 모자랄 때를 기다립니다. 왕께서는 우환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내다가 회계산에 갇힌 뒤에야 모신(謏臣)을 구하니, 이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야유였으나 구천(句踐)은 그런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만일 지금이라도 그대의 말을 듣는다면 아주 늦은 것이 아니질 않소?"

구천이 이렇게까지 몸을 낮추며 애걸하자 범려(范蠡)는 그제야 입을 열어 아뢰었다.

"우리 나라가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길은 딱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구천의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스쳐갔다.

"오(吳)나라에 예물을 보내 화평을 청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는 오왕 합려를 죽인 바 있소. 우리가 화평을 청해도 저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찌 오?"

"오자서와 협상하면 당연히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나라 태재 백비는 재물과 여색을 좋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백비(伯嚭)는 지금 오자서를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환심을 사면 화평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백비가 우리 뜻에 동조한다 해도 오왕 부차(夫差)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질 않소?"

"만일 오왕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왕께서 스스로 볼모가 되어 그를 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월(越)나라 사직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영원히 오(吳)나라에 대해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 왕을 인질로 내주고 나라를 보존한다.

물론 최악의 경우이겠으나 이만저만 상식을 초월한 생각이 아닐 수 없었다. 당장에 목을 베도 그 만일 정도로 불충한 발언이었다.

구천(句踐)은 놀란 눈으로 범려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구천의 눈은 이렇게 질타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려(范蠡)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었다. 정면으로 구천의 눈길을 마주 받았다.

그런 그의 눈동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월나라 사직의 신하입니다.'

잠시 군신(君臣)간에 강렬한 눈싸움이 이어졌다. 눈길을 먼저 피한 것은 월왕 구천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종소. 협상에 임하겠소."

범려(范蠡)는 스승이자 동료 대부인 문종(文種)을 불러 협상 준비를 부탁했다. 도성인 제기로 사람을 보내어 백옥 20쌍과 황금 1천 일(鎰). 그리고 미인 여덟 명을 데리고 왔다.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문종(文種)은 밤의 어둠을 이용하여 오나라 진영으로 갔다.

그는 은밀히 백비의 영채를 찾아갔다.

백비(伯嚭)는 잠자리에 들려다가 월나라 측에서 사자를 보내왔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다.

'어째서 이런 밤중에 나를 찾아왔을까?'

그는 수하 군사에게 물었다.

"혼자 왔더냐?"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자 여덟 명과 함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비(伯嚭)의 머릿속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입가에는 이내 한 가닥 미소가 떠올랐다.

'옳거니. 이는 필시 월(越)나라가 화평을 청하려는 것이로구나.'

백비의 예상은 정확한 것이었으나, 그의 입가에 서린 웃음에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는 오(吳)나라로 망명한 이후 줄곧 오자서의 그늘에 가려왔었다.

대외정책이라든지 전쟁에는 오자서가 한 수 위였다. 그는 이것이 못내 불만이었다.

- 오자서(伍子胥)만 권세를 누릴 것인가.

그는 호시탐탐 오자서를 제치고 국정을 장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2년 전 오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越)나라를 침공했던 것도 오로지 공을 세워 자신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아쉽게도 그 전쟁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오왕 합려까지 부상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

그 뒤 백비는 많이 위축되었다.

이번 월나라 정벌은 그에 대한 복수전이었다.

오자서(伍子胥)가 입안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다.

- 이제 마지막 공세만 취하면 월왕 구천(句踐)은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판이다.

오자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공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었다.

백비(伯嚭)는 시기하는 마음이 일지 않을 수 없었다.

- 그 공을 내 것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뜻밖에 월(越)나라 사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백비는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켰다.

'좋은 기회다.'

섬광 같은 것이 스쳐갔다.

그는 자신의 주도하에 이 전쟁을 마무리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렇다. 내가 월왕 구천의 항복을 유도하면.....!'

모든 공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누가 뭐래도 이번 전쟁의 일등공신은 자기가 되는 것이다.

백비(伯嚭)는 마음을 정하자 월(越)나라 사자를 들어오게 했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8)

월(越)나라 대부 문종(文種)은 몸을 잔뜩 낮춘 채 들어와 백비(伯嚭)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백비(伯嚭)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월(越)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눈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사람은 이익에 밝다. 교활하기도 하지만 다루기도 쉽다.

문종(文種)은 한껏 공손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태재께서는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월(越)나라는 우리 나라 왕을 죽인 불공대천의 원수.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네 나라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냐?"

백비의 언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만했다.

하지만 문종(文種)은 속으로 더욱 기뻐했다. 이런 자일수록 대화를 나누기가 수월한 것이다.

"우리 나라 임금 구천(句踐)은 워낙 아는 것이 없어 그간 오(吳)나라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왕께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시고 오나라 충복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왕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두려워 먼저 공덕이 높고 오나라 간성(干城)이신 태재께 이 미천한 하신(下臣)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잘것 없으나 여기 조그만 물건을 가져왔으니 부디 태재께서는 받아주시고 우리 월(越)나라의 일을 오왕께 말씀드려주십시오."

문종(文種)은 가지고 온 미인 여덟 명과 물품 명단을 백비에게 바쳤다.

백비(伯嚭)는 자신의 예상대로 월(越)나라가 화평할 마음이 있음을 알고 더욱 기뻐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위엄있는 표정을 지으며 꾸짖었다.

"월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때가면 월나라 물건이 모두 오나라 것이 될 터인데, 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시시한 것들을 받을 것인가? 너는 나를 너무 우습게 알았다!"

문종(文種)은 다시 입을 열었다.

"방금 태재께서 월(越)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잘못 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월나라가 패하긴 했지만, 아직 회계산에는 5천 정병이 남아 있습니다. 장차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귀국 군사와 싸우면 어찌 쉽게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싸워서 질 경우에는 성안의 모든 보물을 불살라버리고 초(楚)나라로 달아날 터인데, 어찌 그것이 오나라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吳)나라가 여기서 더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 월나라도 망하겠지만, 오나라 또한 얻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반대로 이번 화평이 성립된다면 오(吳)나라는 우리 월(越)나라를 수족처럼 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재께서는 일등 공훈에 오르시게 되며 나라 일을 태재의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태재께서 이번 화평에 힘써만 주신다면, 저는 우리 나라로 돌아가 왕의 딸을 왕께 바칠 것이요, 대부의 딸을 대부에게 바칠 것이요, 사(士)의 딸을 사에게 바치겠습니다."

문종의 모든 말이 바로 백비가 노리는 바가 아닌가.

백비(伯嚭)는 흐뭇한 마음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그대의 왕은 정녕 우리 오(吳)나라를 섬길 마음이 되어 있는가?"

"어찌 이런 중대한 일을 미천한 하신(下臣)이 마음대로 지껄이겠습니까. 지금의 모든 약속은 우리 왕께서 친히 저에게 내리신 말입니다. 태재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오와 월 두 나라를 모두 장악하십시오."

백비(伯嚭)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대가 오자서(伍子胥)를 찾아가지 않고 특별히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월(越)나라를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내 어찌 그런 그대의 마음을 저버릴 수 있을 것인가. 내일 날이 밝으면 마땅히 그대를 데리고 왕께 가 화평을 주선하리라."

백비(伯嚭)는 문종이 가져온 보화와 미인들을 자기 군막에 숨기고 그를 자기 영중에 머물게 했다. 다음날이었다.

백비(伯嚭)는 문종과 함께 오왕 부차에게 가 월나라가 화평할 의사가 있음을 아뢰었다.

지난 2년간 한시도 부왕 합려의 죽음을 잊은 적이 없는 부차(夫差)는 백비의 말을 듣자마자 눈꼬리부터 치켜올렸다.

"월(越)나라는 나의 철천지원수다. 내 어찌 원수와 화평을 맺을 것인가!"

그러나 이미 백비(伯嚭)는 부차를 설득할 말을 준비해왔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 아뢰기 시작했다.

"왕께서는 지난날 손무(孫武)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군사는 흉기(凶器)이니 잠깐 쓸 뿐 오래 써서는 안 된다.' 월나라가 비록 우리에게 큰 죄를 지었으나, 이제 화평을 청하기 위해 신하를 보내 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본즉, 월(越)나라는 앞으로 몸종처럼 우리를 섬길 것이요, 왕의 딸은 왕에게, 대부의 딸은 대부에게, 사(士)의 딸은 사에게 바칠 것이라 합니다."

"월(越)나라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 종묘를 받들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께서 월나라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구천(句踐)은 종묘를 불태우고 처자를 죽이고 금과 옥을 강물에 던져버린 후 정병 5천 군사와 더불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와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사도 많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께서는 저들을 모두 죽이는 것과 월(越)나라의 땅과 재물과 여자를 얻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묘한 언변이었다.

부차(夫差)는 대답할 말을 잃었다. 아니, 속으로는 백비가 나서서 득이 많은 화평을 주선하고 있는 것이 고맙기까지 했다.

그는 처음의 기세와는 달리 누그러진 음성으로 물었다.

"월(越)나라 사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군막 밖에서 왕의 분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라 이르라."

이때 월나라 대부 문종(文種)이 군막 안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문종(文種), 무릎 걸음으로 들어가 머리를 조아리다.

짧지만 상당히 강렬한 대목이다.

군막이라고 했지만 왕이 거처하는 곳이니만큼 상당히 길고 넓었을 것이다. 그 긴 거리를 시종 무릎 걸음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군막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9)

월(越)나라 대부 문종(文種)의 무릎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질 때마다 피가 배어나왔다.

부차도 백비도 그 밖의 신료들도 그 핏자국을 보았다.

이윽고 문종(文種)이 부차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렸다.

부차(夫差)가 그를 향해 물었다.

"그대 임금 부부가 다 우리 오나라 신첩(臣妾)이 되겠다고 했는지?"

백비(伯嚭)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물론 문종(文種)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구천의 딸을 바치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부차(夫差)의 입에서는 엉뚱하게도 구천 부부 운운하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문종(文種)은 주춤했으나 이내 부차의 뜻을 알아들었다.

'아, 왕과 왕의 부인을 인질로 삼겠다는 뜻이로구나.'

그가 여기 오기 전 범려가 예상했던 최악의 경우가 현실로 닥친 것이었다.

문종(文種)은 망설였다.

어찌 대답할 것인가. 상황으로 보건대 월왕 구천을 인질로 내놓지 않는 한 부차(夫差)는 협상에 응할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 범려의 말대로 나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월(越)나라의 신하다.'

문종(文種)은 마음을 굳히고 다시 한 번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왕께서는 오왕의 신하가 되고 그 처는 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왕의 뜻에 달렸으니, 오로지 중요사직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태재 백비(伯嚭)가 거들었다.

"구천(句踐) 부부는 우리 오나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월나라를 통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 오왕 부차(夫差)는 결심했다.

가슴이 뿌듯했다. 마침내 부왕 합려의 원수를 갚고 월나라를 오나라에 통합시킨 것이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문종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그대는 돌아가라. 가서 월왕에게 전하라. 전쟁은 끝났다고!"

그때 오자서(伍子胥)는 자신의 막사 안에 있었다.

심복 장수 하나가 급하게 들어오며 보고했다.

"지금 월(越)나라 사자가 왕을 알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화평을 청하러 온 모양입니다."

오자서(伍子胥)는 대경실색했다.

이제 군사를 휘몰아 회계산으로 진격하면 영원히 월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데 화평이라니!

그는 혹시나 하여 부랴부랴 부차의 군막으로 달려갔다.

과연 군막 안에는 월나라 사자 문종(文種)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표정으로 보아 이미 협상을 마친 후인 것 같았다.

오자서(伍子胥)는 예를 올리는 것도 잊고 외쳐 물었다.

"왕께서는 월나라와 화평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가?"

"그렇소. 허락했소."

오자서가 부르짖었다.

"안 됩니다. 화평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외침 소리에 놀란 것은 월나라 대부 문종이었다. 그의 얼굴은 삼시간에 흠빛으로 변했다.

오자서(伍子胥)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거나 않을까 두려워서였다.

오자서는 계속해서 험악한 어조로 간언을 올리고 있었다.

"바야흐로 하늘이 월(越)나라를 우리 오(吳)나라에게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라니요? 세 줄기의 강물(전당강, 오송강, 부춘강)이 오와 월을 둘러싸고 있어 이 곳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며, 오(吳)가 있으면 월이 있을 수 없고, 월이 있으면 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릇 우리가 북쪽 중원 땅을 쳐서 이긴다 해도 우리는 그 곳에서 살 수 없고 그들의 수레도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越)나라는 우리가 쳐서 이기면 곧바로 그 땅에서 살 수 있으며 그들의 배

도 탈 수 있습니다."

"생사를 판가름하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어찌 그런 이익을 버리려 하십니까? 더욱이 월(越)나라는 선왕을 죽인 원수입니다. 오(吳)나라와 월(越)나라는 한 배를 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왕께선 선왕의 유언을 잊으셨습니까?"

오자서의 거센 반발에 오왕 부차(夫差)는 당황했다.

뭐라 대답할지 몰라 눈만 껌벅이는데 태재 백비(伯嚭)가 앞으로 나서서 아뢰었다.

"재상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저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복종을 위해서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굴복하는데, 그것을 치는 것은 예(禮)가 아닙니다.

지난날도 우리 오(吳)나라는 월나라와 수로(水路)로 의(誼)를 맺고 진(晉)나라와는 육로로써 의를 맺은 바 있습니다."

"만일 오자서재상의 말처럼 오월이 동주(同舟)할 수 없다면 육로로 인접해 있는 진(晉), 진(秦), 제(齊), 노(魯) 여러 나라는 진작에 한 나라로 통합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안 되고 제노(齊魯) 동행은 된다는 말입니까."

"또 오자서(伍子胥)는 선왕의 원수이기 때문에 월(越)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자서는 자신의 원수국인 초나라와는 어찌하여 화평을 맺었습니까? 더욱이 그때의 화평조건이란 고작 공자 승(勝)을 돌려보낸 데 불과했습니다."

"지금 월(越)나라는 왕이 우리 나라로 들어와 종복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비교해도 어느 것이 유리합니까.

지금 오자서(伍子胥)는 충성을 빙자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는 왕에게 잔인하다는 평만 남겨줄 것입니다. 진실로 오(吳)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월(越)나라와의 화평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묘한 논리였다. 오왕 부차(夫差)는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띠었다.

"태재의 말이 이치에 합당하오. 재상은 이번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과인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오."

오자서(伍子胥)는 기가 막혔다.

탄식과 분노의 불길이 가슴속에서 활활 타올랐다.

'지난날 내가 피이(被離)의 말을 듣지 않고 백비를 천거했는데, 아아 그가 비무극보다 더한 간신일 줄이야.'

오자서(伍子胥)는 탄식에 탄식을 거듭하며 막부를 나왔다.

마침 대부 왕손웅(王孫雄)이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자서는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그에게 말했다.

"월(越)나라는 앞으로 10년이면 회복할 것이요. 다시 10년이면 크게 일어날 것이요. 그러므로 20년 안에 우리 오(吳)나라 궁성은 큰 못으로 변하고 말 것이요."

이를테면 예언이었으나 왕손웅(王孫雄)이 그 말뜻을 알아들을 리 없었다.

반면, 군막 안에 남아 있는 백비(伯嚭)는 속으로 승리의 환호를 지르고 있었다.

'오자서(王孫雄)를 꺾었다. 이제 앞으로는 나의 시대다!'

부차(夫差)는 부차대로 자신의 위엄과 성덕을 펼친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되었다.

월나라 대부 문종에게 화평 조약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 그대는 돌아가서 화평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월왕(越王)에게 말하고 친히 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꿨도록 하라.

며칠 후, 회계산 기슭에 높은 단이 세워졌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화평조약을 맹세할 제단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제단은 여느 회맹 때의 것과 많이 달랐다. 대등한 조건에서의 협정이 아니라 월(越)나라가 오(吳)나라를 섬기겠다는 항복 맹세인 것이다.

오왕 부차(夫差)는 높은 단 위에 앉았다.

월왕 구천(句踐)은 단 밑에 무릎을 꿇었다. 구천은 몸을 일으켜 계단을 올라가 친히 항복 문서를 부차에게 바쳤다.

부차(夫差)는 흡족했다. 타이르듯 구천에게 말했다.

"일찍이 나는 월나라의 모든 신료를 살육하여 부왕의 원수를 갚으리라 결심했었다. 그러나 그대의 신세가 너무 가련하여 차마 죽일 수가 없구나. 이제 월(越)나라는 나의 영토가 되었다. 그대는 지난 죄를 깨닫고 신하의 신분으로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구천(句踐)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한다.

"대왕의 크신 은덕으로 목숨을 보존하였으니 어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제부터 평생토록 대왕을 모시며 함께 고락을 누리겠습니다."

이른바 '회계산의 치욕'이었다.

월왕 구천(句踐)은 마음속으로 이 수모와 굴욕과 울분을 잊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웃음을 머금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다만 대왕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은 이미 대왕의 신하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지금 당장 대왕을 따라 오(吳)나라로